

# CASTER 제작의 선두 동양산업

## 33년 동안 품질 및 기능개선 위해 노력 공장앞 도로 과속방지턱·감시카메라 설치해야



동양산업이 제작한 캐스터

각종 캐스터 바퀴, 주물제품, 앵글로라 등 특수바퀴 주문제작 전문업체 동양산업(대표이사 김봉석·사진)은 포천시 내

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저가지만 고품질의 캐스터만을 연구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는 정신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생산품목은 냉장고형 캐스터, 경량용 캐스터, 중간중용 캐스터, 중하중용 캐스터, 고하중용 캐스터, 특수바퀴 등이다.

특수바퀴는 우레탄 고무 발포바퀴, 건축경량용 캐스터, 트윈휠(쌍바퀴) 시리즈, 푸드마스터, 조절차, 사물함가차, 파이프 항가차, 이륜차가차, 하차, 앵글로라 캐스터, 레일 바퀴, 샤프트, 산업용 카트, 대차, 달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각종 캐스터를 제작하고 있는 김봉석 대표이사는 "비록 어려운 시장

이지만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생산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요거래처에서 중국산 저가 공세에도 동양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품질과 기능면에서 앞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공장앞 도로는 남양주와 내촌을 잇는 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반사경을 설치하고 주의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빠른

속도로 고개를 내려오는 차량들에 의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속방지턱이나 속도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명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공장을 가리켜 마명공단이라고 하는데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불안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양산업이 제작한 캐스터

## (주)원광지앤피 신사옥으로 이전 開業

### 포천시 자작동 두현실업 상호변경 이전

포천시 자작동에서 식품포장지 생산 전문업체 두현실업이 (주)원광지앤피(대표이사 신준배)로 상호 변경하여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주)원광지앤피는 11월16일 오후3시30분에 이전개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주)원광지앤피는 11월16일 오후3시30분에 이전개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7 남양산업

## 유기적 만남을 통한 협력업체와 동반자



대표 전은자

현재 한 글라스 그룹의 모기업인 한국유리공업(주)은 국내 유리업계의 평정과 해외시장에서 브랜드를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다.

지난 1957년 설립되어 1965년 관유리공장 건설, 1973년 동성관유리(주)를 인수, 1993년 중국에 합작법인 설립, 프랑스와 폴란드에 자동차 안전유리 제조를 위한 합작투자사로 브랜드에 걸맞게 국내유리산업을 발전 시켜왔다. 한 글라스의 주요사업은 관유리 제조, 판매와 유리제품 수출과 수입, 유리원료의 채광, 참호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양산업(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05-2 대표 전은자)은 지난 1992년 설립을 시작으로 오랜

기 때문에 본사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등에서도 홍일점이라고 말한다. 타 대리점 사장과는 달리 바쁜 일이 있어 세미나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다음 세미나에서는 '왜 참석을 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전 대표는 바쁜 일정이지만 본사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 대리점 사장들에게 필요한 경영전략과 미래 지향적인 발상을 듣고 배우와 자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남양산업의 주요사업으로는 북경유리·관유리 도/소매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올 4월에 공장을 위 초점으로 옮기면서 하이샷시를 병행 취급하며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 대표는 "수많은 기간동안 유리업계에 활동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많은 업체, 고객들과의 유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협력의 길을 모색하며 업체와 고객위주의 경영을 실천해오며 고객이 주문한 제품은 남기 일을 정확히 지키면서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 고객과의 약속은 기업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라고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또한 오랜 기간동안 같이해온 고객들로부터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무척 도움이 되고 힘이 나며 앞으로도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업계에 많지 않은 여성 CEO이기 때문에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시공, 마무리

### '남기 일은 꼭 지키다'는 고객과의 약속 중요

경험과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업체다. 고객과의 약속은 꼭 지키는다는 전 대표의 철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성의 있는 견적과 시공, 깔끔한 일 처리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A/S는 이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온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다년간 유리업계에서 몸 담았던 전 대표는 한 글라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경기북부지역 내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 글라스 전국대리점 중 여성 CEO는 전 대표뿐이라고 한다. 여성 CEO가 전 대표 혼자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전 대표는 "여성으로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우리 업체는 영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내가 직접 영업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한번 본 고객들께 함께 날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도 절약되지만 영업 효과도 증대되어 이익을 받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자사운영과 영업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르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며 선도해주는 한국 BBS 포천시지회 회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문의) T. 031-536-0633, F. 031-532-0296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남양산업(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05-2 대표 전은자)은 지난 1992년 설립을 시작으로 오랜 경험과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업체다.

## 행복한 보험이야기 14

## 아름다운 노후를 위하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즉 돈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다. 움직여 살아가는 자체가 적든 많은 돈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력을 갖추어 나가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 30대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까? 먼저 재무적인 관심사는 주택구입과 자녀교육 등 안락한 가정무미기에 우선한다 하겠다. 이 30대에는 자녀양육과 경제적 문제로 맞벌이를 계속할지 고민하는 세대이다. 이때에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계획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재무상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나의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본 후 너무 불필요

한 자산을 과감하게 처분한다. 처분한 자산은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30대 과제 중 하나는 주택 마련이다. 큰 평생의 주택을 얻기 위해 과도한 지출은 삼간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기도 하여 주택 마련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세로 살면서 재테크에 더 관심을 갖는 추세이기도 하다. 주거 관련 부채비율은 본인 총소득의 30% 내외가 적당하다. 주택의 규모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자신의 규모를 따지지 말고 늘 순 재산 즉, 자산부채를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나와 가족을 위한 위험 보장에 무엇보다 충실해야 한다. 노후 문제도 다 본인 과 가족의 안정 및 행복을 위한 것이다. 가장인 나에게 유고가 생길 경우 내 가족은 안전한가? 어엿한 자녀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 내게 치명적인 위험요소 및 적어도 중요한 위험 요소는 없는가? 나이

가 들면 들수록 보험가입이 어려워지는 점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30대의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청약부금/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세계적저연금,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 정기 및 질병보험, 국내 및 해외투자 펀드 등이 있다.

40대에는 재산형성기로 주택규모 확장, 자녀교육비 마련 등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나이이다. 퇴직과 이직, 창업 문제 등 자신의 진로문제가 고민인 세대이다.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업연금 등 노후자산을 지켜야 한다. 예금 및 펀드 등으로 노후자산을 최대한 늘린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나와 나의 가족을 도와줄 전문적인 금융전문가를 옆에 두어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어떻게든 돈인 만큼 종자돈의 소중함을 알

아야 한다. 40대 후반까지는 노후자금의 70% 이상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재테크 시기이다. 40대를 위한 재테크 금융상품으로는 주식형의 비율을 줄이고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50대에는 가족성숙기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시기라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40대보다 더욱 소비지출을 절제할 필요가 있고, 노후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자녀교육과 결혼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으면서, 노후자금의 90% 이상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정 금호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 새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로 가는 지름길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발급 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 내용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소득공제 인정-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건당 5만원)
- 신고방법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고 '현금거래확인신청서'(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작성하여 신고
  - 신고서류 접수
    - 방문·우편: 가까운 세무서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맹점 발행거부 신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접수 <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s에 회원가입하세요>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나 각종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해당번호를 등록해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본인 사용내역으로 집계되어 매월 복권 당첨 행운 및 연말정산내 소득공제

- 등록하면 그동안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 사용내역으로 집계됨

\* ID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시고, 비밀번호 찾기에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전국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권리4과 870-4484-4487/4502-4507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원석 파쇄기 점검을 위해 파쇄기 상부 이동중 추락

▶재해발생 개요 0000년 7월 경상북도 소재 석제품 제조 작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파쇄기투입부에서 파쇄기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파쇄기 상부로 이동 중 2.7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 실시

2차 파쇄기(Cone Crusher)로 올라가는 계단통로 측면에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2.1~2.7m(폭:30cm) 사이의 계단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미설치.

나. 안전모 등의 추락방지를 보호구 미착용 지면으로부터 높이 4.4m 지점에 위치한 2차 파쇄기(Cone Crusher)투입구 점검 등의 작업은 2m 이상의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등의 보호구를 미착용한 채 이동함.

▶중중재해 예방대책가.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기계·설비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



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 가.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

높이가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호구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 국민연금 Q&A

□연금보험료는 세금도 아닌데 왜 연체료를 부과하는지?

##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 행정상 벌로 지연이자 부과하는 것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으로 하루라도 지났면 연체금(3%에서 최고 9%까지)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된다. 연금보험료를 납기 후 납부했으니 독촉고지서가 발행된 경우는 독촉고지서를 폐기하면 된다.

연금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연이자 개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해 국민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강제징수가 필요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자를 방지하면 그 노후비용 부담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체를 막아야 하고 그 일환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 공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행정상 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법률로 규정돼 있다.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행정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나 미납에 대한 엄격한 연체료 적용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을 하루만 경과해도 한 달 연체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물론 국민연금 연체료는 최대 9%를 그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했다고 모두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책임이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천재지변으로 보험료 납부자체가 어려운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 031-544-8700